

# 지금 우리가 서는 이날이 바로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다.

- 이름 : 이준희
-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아동기금(UNICEF) 공급팀
- 직위/직급 : 기술 전문관(Technical Specialist)
- 지원경로 : UNV 청년봉사단 10기 및 공석응모
- 근무기간 : 2022.04. - 현재

## 1. 직장인에서 청년유엔봉사단으로의 첫 발자국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수능 이후 내가 선택할 과보다는 좋은 학교를 선택했고, 전과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과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했었다. 비록 학업에 큰 재미는 느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업에 충실했고 그 결과 좋은 성적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하여 나이 26살에 원하는 외국계 화학회사 물류팀 화학공학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다.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다.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 주변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고, 회사 내에서도 입지를 차차 잘 쌓았다. 그렇게 회사 2년차를 마무리하고 3년차로 접어들 때 즈음 문득 내 자신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남들이 보았을 때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놀랍게도 나는 화학회사에서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 단지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지, 내가 즐거워서, 혹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없었다. 당시 내 나이는 27살, 곧 2달 뒤면 28살이 되는 시점에서 30대가 되기 전 한 번 뿐인 나의 20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무엇일까?’ 라는 정말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현재 신분, 위치, 학력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꿈. 나에게 그 꿈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었다. 누구는 ‘막연하다’ 고 말할지라도, 위 결론을 내리는데 며칠 고민을 했었다. 그만큼 나에게 만큼은 막연하지 않은, 실제로 이루고 싶은 꿈이었다. 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린 이후, 이제 현실로 잠시 돌아와 ‘지금의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여, 화학회사를 다니면서 배운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위생 관련 혹은 물 정화시설 관련하여 일하는 기구 혹은 프로젝트에 기여해 사람들에게 더 깨끗한 물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현재 다니고 있는 물류팀 경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에서의 역량을 펼쳐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목표가 정리가 된 이후, 이제 어떤 국제기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말 많은 기관에서 매년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단지 과거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기회들도 상당히 많아서, 일찍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기회가 많았을까?’ 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니, 외교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청년봉사단-UNV(UN Volunteer) 프로그램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그해 10월에 확인을 했고, 청년유엔봉사단의 지원 자격에도 충분히 충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분야를 모집할 수도 있었기에 차근차근 위 두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나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였다. 비록 2021년도 청년유엔봉사단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서는 열리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유니세프 터키사무소에서 구매부서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 준비도 열심히 했고, 마침내 최종면접 끝에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됨에 따라다니던 회사 또한 퇴사 준비를 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했었다. ‘왜 힘들게 취업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를 퇴사하는지?’, ‘왜 안정적인 길과 급여를 포기하고 청년유엔봉사단으로 가는지?’ 하지만 나는 현실이라는 가림막에 잊고 살았던 나의 꿈을 다시 꺼내어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절대 늦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뿐인 인생, 사회적으로 보이는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적어도 20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특히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막연히 아무 국제기구를 가는 것을 희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진로를 올바르게 정했으면 좋겠다.

## 2. 청년유엔봉사단에서 P-2 Technical Officer의 두 번째 발자국

유니세프 터키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터키 유니세프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ECARO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대신해 구매업무도 했기 때문에 정말 바빴다. 당시 나의 사수분이 계셨지만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 내가 온 이후 1달 만에 퇴사를 하셨고, 그 업무를 자연스럽게 내가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나는 청년유엔봉사단 신분이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량을 할당받았고, 초반부터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매우 뚜렷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했고,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지내야 했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많았다. 청년유엔봉사단 소속

이었지만, 6개월 만에 독립해서 부서를 대표해 혼자 회의를 이끌기 시작했고, 크고 중요한 업무들을 매니저로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않았지만, 내가 했던 업무들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고 일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상사분께서 코펜하겐에 있는 유니세프 Supply Division<sup>1)</sup>의 Water & Sanitation and Education Center<sup>2)</sup> 아래 Education 부서의 P-2 ‘Technical Officer’ 자리에 지원해보는 것이 격려 해주셨다. 청년 유엔봉사단에서 P 직책으로 바로 간다는 확률은 매우 적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공고가 올라온 직무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가 화학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유니세프 터키사무소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나갔다. 면접 때에도 나의 공학적인 배경, 그리고 그동안의 물류팀에서의 경력과 터키 유니세프 사무소에서의 구매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어필하였고, 같은 해 2022년 12월에 최종 1인으로 선정되었다. 추후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상사로부터 나의 인터뷰 후기를 여쭙어보니, 유니세프에서 8개월 근무한 것보다 훨씬 더 실무를 잘 알고 있어 인상이 깊었다고 해주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모여 내가 현재 청년유엔봉사단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후보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국제기구에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유엔봉사단이어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되면 어느 직책이든지 가능성이 무한히 있다는 것이다. 청년유엔봉사단뿐만 아니라 인턴, 컨설턴트는 모두 계약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만 쌓고 오는 것이 아닌 그 기간 안에 자신의 역량 또한 키우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1) 유니세프 Supply Division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물류센터이다.

2) Water&Sanitation and Education 센터는 크게 3개의 (Wash Unit, Education Unit, Project Support Unit) 부서로 구성되어있으며, Education 부서에서는 School-In-a-box, Recreation Kit, Early-Child-Development Kit와 같은 물품을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금 바쁠지라도 많은 업무도 담당해보고, 직접 해보는 것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 노력의 땀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 3. P-2 Technical Officer에서 P-3 Technical Specialist의 세 번째 발자국

그리하여 2023년도 1월부터 코펜하겐 유니세프 Supply Division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큰 기대를 갖고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불행하게도 나의 상사분이 병가로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채로 생소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했다. 직책도 직책인지라 이제는 모르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그저 팽개칠 수는 없었다. 최대한 해결책을 쥐야 하는 직책에서 정말 많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필요한 내부 절차서도 하나하나 정독했어야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지만 차근차근 밀린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었고, 우리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기간이 없었다면 현재 이만큼 성장했을까 싶다. 이후 상사분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동안 내가 ‘옳다’ 라고 생각했던 방식들이 때론 효율적인 방식으로 채택되어 바뀌기도 하였고, 때론 상사분의 조언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였고, 상사 또한 나에게 독립된 일을 많이 맡겨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상사분의 인사발령이 올해 9월에 유니세프 타 사무소로 가게 되셨다. 그 자리가 채워지지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 상사분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 P-3 직책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느꼈던 점은 중요한 미팅 자리도 많았고 많은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가 아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만큼 내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높은 직책이었기에 지원 자체를 망설였지만, 회사 동료들의 지원격려에 힘입어 도전했고, 면접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였다. 준비를 할수록,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절차서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이 꽤 많았다.

면접은 생각대로 꽤 어려웠다. 같은 역량 관련 질문이어도,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 꽤나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 직무 면접 또한 꽤 까다로운 질문들이었다. 내가 하는 업무들이긴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이 겹친 상황들이 주어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도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늘 면접을 보고 나면 후회한 구석에 남듯, 100% 만족한 면접은 아니었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올해 12월 P-3 Technical Specialist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경력이 꽤 되어 바로 높은 직책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차근차근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더 추천해주고 싶다. 청년유엔봉사단뿐만 아니라 인턴, 컨설턴트 등 국제기구에 입문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이 또한 진입장벽이 꽤나 높으며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제기구에 처음 입문하는 것이라면 높은 직책에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잡았을 때, 정말 후회 없이 많이 일해보고,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만의 경쟁력이 생긴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속에 국제기구에 대한 작은 혼이 있다면 불타올랐으면 좋겠다. 후회 없이.

[별첨 사진]



그림1. 2022년 터키 유니세프 사무소 Deputy Representative와 Operation 동료들과 함께



그림2. 2022년 함께 같이 근무했던 터키 유니세프 사무소 구매팀 동료들과 함께



그림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코펜하겐 Unicef Supply Division



그림4. 코펜하겐 UN City. 유니세프 타부서와의 미팅이 있거나, 자유롭게 오고 싶을 때 와서 근무한다.



그림5. 2023년 우리 WSEC 부서 사람들과 함께



그림6. 2023년도 동료들과 함께 참여한 DHL 마라톤